

いずみ 이즈미

표제 글씨 단지 마사오(丹治 正雄)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미래를 바라며 ~지원에 대한 감사인사

2019년 12월 21일, 가쿠다시내 (角田市內)에서는 「이즈미」 주최로 갑상선 초음파 검사가 실시되었습니다. 가쿠다시(角田市)는 지난 10월 태풍19호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검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 염려했는데, 당일에는 60명 이상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즈미의 핫토리 사무국장님의 제안으로 2년 전부터 검사 스태프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양(케어) 프로그램과 1회째 검사 때부터 저희 아이들도 참여하여 도움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즈미의 여러분들께는 이전부터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동안의 감사와 도움에 뭔가 보답할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고 있을 때에 스태프 제안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제 주변에서는 방사능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화젯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검사에 오시는 분은 많고, 매년 검사를 받고 있는 분, 그리고 처음 오시는 분도 많습니다. 이번에는 자녀와 동행하신 보호자들도 검사를 받으셨는데, 자녀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보호자들도 검사 결과를 알 수 있게 되어서, 가족들의 불안이 조금이나마 해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매년 검사를 받고 있어서, 검사과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지만, 여전히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매번 불안하고 긴장이 됩니다. 하지만, 테라사와 의사선생님을 비롯한 스태프 여러분들의 정성스럽고 따뜻한 진료에 긴장을 풀고 안심하며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원전사고로부터 이제 곧 9년이 됩니다. 방사능 오염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전해지고 있지만 검사결과에서 갑상선암이 확인되었다는 신문기사 등을 볼 때면 마음이 불안해 집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검사를 지속적으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이즈미」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20년 1월 21일 미야기현(宮城県) 가쿠다시(角田市) H.S.



방사능 문제 지원 대책실 「이즈미」

2019년도 갑상선 초음파 검사 결과

갑상선검사 판정결과 누적표(2013년 12월~2020년 3월)

연도	A1	A2	B	C	검사자수※1 (괄호 안 성인)
2013~2018년도	1,584명	1,520명	30명	0명	3,134 (92) 명
2019년도	177명	233명	16명	0명	426 (76) 명
총계	1,761명	1,753명	46명	0명	3,560 (168) 명
소수점 둘째 자리 반올림	49.5%	49.2%	1.3%	0%	

판정	내용	해설	
A1	결절과 낭포를 인정하지 않는 것.	현시점에서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고 문제 없습니다.	※1. 사고 당시 18세 이하(유아·아동·청소년)를 주된 대상으로 함. 사고 당시 19세 이상의 성인과 사고 후 출생자 포함.
A2	5mm 이하의 결절, 20mm 이하의 낭포를 인정한 것.	작은 낭포와 결절(응어리)이 발견되었습니다. 특별히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경과를 관찰해 봅시다.	
B	5.1mm이상의 결절, 20.1mm이상의 낭포를 인정한 것.	2차(정밀)검사를 권합니다.	
C	즉시 2차 검사를 요함.	전문의·전문기관에서의 2차(정밀)검사가 필요합니다.	

2019년 갑상선 검사 결과

No	개최일	실시지역	검사자수	검사의사(존칭생략)
제60회	2019년 4월 14일	가와사키마치(川崎町)	56명	테라사와 마사히코
제61회	2019년 5월 26일	이시노마키시(石巻市)	31명	미야기 민의연 (宮城民医連) 야자키 토모코
제62회	2019년 6월 29일	나토리시(名取市) 「나토리교회」	72명	테라사와 마사히코
제63회	2019년 8월 1일	자오마치(蔵王町)	49명	테라사와 마사히코
제64회	2019년 9월 29일	시로이시시(白石市)	43명	테라사와 마사히코
제65회	2019년 10월 20일	센다이시(仙台市) 이즈미구(泉区)	31명	미조구치 유미코
제66회	2019년 11월 16일	센다이시(仙台市) 「에마오」	27명	이마가와 아쓰코·야마자키 토모유키※2
제67회	2019년 12월 21일	가쿠다시(角田市)	61명	테라사와 마사히코
제68회	2020년 1월 19일	센다이시(仙台市) 이즈미구(泉区)	33명	미조구치 유미코
제69회	2020년 3월 14일	구리하라시(栗原市)	23명	테라사와 마사히코
계 10회 합계 426명 (사고 당시 19세 이상의 성인76명 포함)				

※2. 야마자키 토모유키 의사- 의료·건강 상담, 검사결과 설명을 위해 참가

【보고】2019년도 갑상선 검사 ·제14회 부모자녀동반 단기 보양(케어) 프로그램

2019년도 갑상선 검사결과에 대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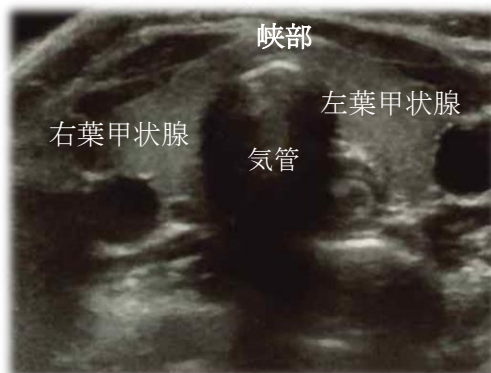
2018년도부터 검사 대상을 자녀들뿐만 아니라, 희망할 경우 동반하는 보호자도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사선 감수성이 높은 아이들은 물론, 원전사고직후의 방사성 요오드농도가 높았던 시기에는 성인, 어린이 모두 방사선 피폭(내부 피폭)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피폭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 경시해서는 안되고, 개인차도 고려해야 합니다.

2019년도는 예년과 달리 검사결과에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B판정을 받은 사람이 16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검사활동을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이 관찰 된 한 해였습니다. 내역은 성인(30~70대)여성 14명, 10대 어린이 2명(남녀 각 1명)입니다. 「이즈미」의 파악에 의하면 그 후 현시점에 있어서 다행히 악성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전부터 성인 여성은 남성보다 일반적으로 갑상선 질환의 빈도가 높은 경향이 있는데, 방사선 피폭에 의한 영향 여부에 대해서는 갑상선 초음파 검사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한편, 10대 여자아이에 관해서는 5.1mm이상의 결절(응어리)이 검사 영상으로 확인이 되었기에 B판정이었습니다. 약 3년 전에 실시한 이전 검사에서는 낭포도 결절(응어리)도 없는 A1판정으로 갑상선은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후쿠시마현에서 실시하고 있는 갑상선 검사는 올해 4월로 다섯 번째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전 검사로부터 다음 검사까지(최단 약2,3년 경과) 갑상선암이 되거나 악성으로 의심되는 케이스가 두 번째 검사 이후에 약 100건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뉴스레터 제12호 6페이지에 게재한 대로 이러한 수치(인원수)는 실제보다 적게 기록된 것입니다. 소아나 10대 아동·청소년의 갑상선암 임상에 대한 검증이나 지견(知見)이 아직 부족한 상태지만, 후쿠시마현 조사에 의하면, 이상이 없거나 문제가 되지 않았던 사람이 다음 번 검사에서는 갑상선암, 또는 악성으로 의심되는, 지금까지의 의학적인 상식에서 일탈된 사례가 적지 않은 빈도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전 사고가 일어난 후쿠시마현을 비롯해서 방사성 요오드나 세슘에 의해 오염되어 내부 피폭을 피할 수 없었던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갑상선 스크리닝(초음파 검사 등)이 필요합니다. 저선량 방사선 지역에서는 뒤늦게 나타나는 영향이 더욱 염려된다는 것과 10대 여자아이의 케이스 등에 주의하여 앞으로도 검사의 기회를 부디 잘 이용하셔서 자녀와 자신의 건강을 위해 장기지속적으로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14회 부모자녀동반 단기 보양(케어) 프로그램 in 오키나와

(북 일본 3교구·「이즈미」공동주최, 가톨릭 정의와 평화 센다이 협의회 협찬)

3월 26일(목)부터 30일(월)까지, 오키나와에서 보양(케어)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당시 한센병이었던 설립자와 기부자들에 의해 지어진 오키나와 아이라쿠엔(愛樂園), 입소자 분들의 현재의 모습과 앞으로의 문제, 오키나와전쟁에 대해서, 그리고 바닷가에서 보낸 즐거운 시간, 보양(케어)과 병행하여 오키나와 풍토와 역사, 문화를 접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의 사전 준비단계에서는 오키나와와 미야기현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가 일정기간 안정된 상태였기에 감염예방에 주의하며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직전과 기간 중에 감염자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이 확인 되어, 감염예방, 그리고 감염이 확대되지 않는 것을 최우선하여 조심스럽게 실시하였습니다. 오키나와교구 관계자 분들의 따뜻한 협조와 지원을 받아 실시했던 이번 프로그램에는 후쿠시마현에서 다섯 가족 14명(성인 5명, 어린이 9명)의 부모와 자녀가 참가하였습니다. 작년 가을 태풍 19호에 의한 재해, 올해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환경 변화, 방사선피폭의 책임 회피문제에 그동안 쌓인 정신적인 부담을 경감·완화하고자 했던 목적은 부족하나마 달성된 것이 아닐까 되돌아봅니다. 협조·지원해 주신 모든 관계자분들, 기도해 주신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보양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꾸준한 수요가 있고, 공간방사선량·토양오염 등은 여전히 원전사고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가기에는 아직도 아주 먼 상황입니다. 갑상선 검사의 실시와 함께 앞으로도 계속해서 따뜻한 지원과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동북교구 방사능 문제 지원 대책실 「이즈미」 사무국장 핫토리 켄지(服部 賢治)

제14회 부모자녀동반 단기 보양(케어) 프로그램

참가자 감상문 「오키나와 보양(케어) 프로그램에 참가한 후에」

2020년을 맞이하여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사고로부터 재건과 복구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도쿄 올림픽이 드디어 개최되는구나' 하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중국에서 신종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증이 발생하고 이것이 세계적으로 감염이 확대되어, 일본 국내에도 심각한 상황이 되어가는 가운데 이번 오키나와 부모자녀 동반 보양(케어) 프로그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3월이 되자 초등학교가 휴교를 하고, 일상생활이 갑자기 변화되면서, 어린 아이들의 마음은 정체도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공포와 불안을 느꼈을 것입니다. 평소와 같이 보통의 생활을 할 수 없는 것, 뉴스 등에서 들려오는 세계의 심각한 상황은 아이들의 마음에 큰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외출 자제를 당부하는 중에 보양 프로그램에 참가해도 되는 것인지 갈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너무나 기대하고 기다리던 오키나와 프로그램.

출발 전에 이즈미의 핫토리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오키나와에서는 따뜻하게 맞이해줄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는 메일을 받고, '가도 괜찮겠다'하고,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오키나와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며, 주어진 시간을 소중하게, 그리고 지쳐있던 아이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라며, 기대감과 함께 출발의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번, 보양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날 수 있었던 후다(布田) 목사님, 핫토리 사무국장님, 오키나와 교회의 목사님들, 그리고 세미나 하우스와 각 시설에 계신 여러분들의 따뜻함과 배려에 감사의 마음이 가득해졌습니다. 오키나와의 따뜻한 기후와 여유롭게 흐르는 시간에 아이도 긴장으로부터 점점 해방되고, 5일간의 프로그램을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아름답고 풍성한 자연 속에서 보낸 5일간은 저와 아이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한센병에 대해서, 오키나와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평화의 의미에 대해서 등, 많은 것을 저와 아이가 배우고, 생각하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것에 감사 드립니다. 한센병에 대한 힘든 과거와 지금의 현상, 앞으로의 과제. 오키나와전쟁의 참상,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해결되지 않는 시간과 앞으로도 계속 되어지는 오키나와 사람들의 삶.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동향이나 정보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행동해야 하는가. 미지의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싸움과 그 위협. 아직도 빛이 보이지 않는 앞으로에 대해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들이 안고 있는 문제, 그리고 후쿠시마의 현재상황들을 다시 한번 깊게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에서 일어난 사고에 의한 방사능 오염의 현실. 그로 인해 고심을 계속하고 있는 지금. 그리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지, 그 나아갈 앞길이 편견과 차별이 없는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지.



아이라쿠엔(愛樂園) 발상지(설명판)



많은 생각이 교차하며 가슴이 답답해질 때가 많았습니다.

아이라쿠엔 자료관의 스태프 여러분들의 이야기.

긴쥬 미노루(金城実)씨의 열정적이면서도 부드러운 이야기.

사키마(佐喜眞) 미술관의 학예원 분들의 이야기.

교회 목사님들과 세미나 하우스의 스태프 여러분들, 후다 목사님, 핫토리 사무국장님, 이즈미의 여러분들의 따뜻한 이야기.

아이들에게는 조금 어렵다는 느낌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번 보양 프로그램을 통한 경험은 아이들의 마음속의 씨앗이 되고 미래를 생각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체험과 귀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즈미의 보양 프로그램에 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 드립니다.

다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며, 조금이라도 밝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이와 함께 일상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몸 건강히 지내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후쿠시마현 40대 엄마
(사진 「이즈미」촬영)



총검과 불도저에 대한 비폭력 저항 (긴쥬 미노루씨 제작 조형물)

【기고】오나가와 원전 2호기 재가동에 대해서

방사능 문제 지원 대책실 「이즈미」 고문 시노하라 히로노리(篠原 弘典)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 9년이 경과했습니다. 거대한 쓰나미 피해지역에는 가설 주택이 대부분 해체되고, 주거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어가고 있지만, 새 삶의 터전 만들기는 이제부터 시작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러한 미야기현 오나가와초(女川町)에서 오나가와(女川)원전 2호기를 재가동 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본격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피해지역에는 아직도 부득이한 이유로 피난하고 있는 사람이 4만 명 이상이나 되고, 원전의 폐로 작업은 극도로 곤란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지금까지 지켜보아 온 시민들 사이에서는 원전의 재가동에 반대하는 의견이 확대되어가고 있고 여론조사에서 7할이 재가동 반대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작년 말부터 작년 초까지 미야기현 시민그룹의 현민 투표조례 제정운동 「재가동 여부는 시민이 함께 정한다」에서 무려 2개월 동안 지방 자치법에서 정한 인원의 약 3배에 해당하는 11만 명의 법정 서명을 모았습니다. 이 조례제정의 요구는 작년 2월의 미야기현 의회에서 자민당 등의 반대 다수에 의해 부결되었지만, 재가동을 둘러싼 현민의 의지가 어떠한지를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2017년 7월 13일 동북전력 오나가와 원전 2호기



2018년 가을 센다이 시내 서명운동 모습

이러한 시민의 뜻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촌(原子力村)에서는 원전의 재가동을 향해 구체적인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원자력 규제위원회는 2월 26일에 오나가와 원전의 원자로 설치 변경 허가 신청이 신규제 기준에 적합하다는 결정을 내리고, 3월 2일 다카하시(高橋) 자원 에너지청 장관이 무라이(村井) 미야기현 지사에게 재가동에 대한 지역 동의를 요청했습니다

동북전력이 동일본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오나가와 원전의 재가동을 겨냥하여 원자력 규제위원회에 적합성 심사를 요청한 것이 2013년 12월이었고, 적합판정이 나올 때까지 6년여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176회의 심사가 진행되었는데, 이것은 앞서 적합 판정을 받은 가시와자키카리와(柏崎刈羽) 원전 6,7호기의 심사 151회를 넘어선 것입니다. 동일본 대지진의 강진이 오나가와 원전을 강타한 진동은 567.5gal로 후쿠시마 원전의 550gal을 넘어선 것으로 재해에 의한 원전 고유의 문제가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엄청난 강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북전력은 오나가와 원전의 주요 설비에 관한 피해는 61건의 경

미한 것밖에 없고, 2015년 8월까지 모든 것이 복구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눈으로만 확인하는 목시 점검에서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정말 그럴까 하는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경험하고 만들어진 신규제 기준은 세계 제일의 엄격한 기준이라고 말하지만, 6년여의 심사를 위한 모임을 지켜보며 부족함이 많은 기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신규제 기준은, 노심용융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을 상정하여 만들어진 것인데, 세계의 주류가 된 노심용융물을 냉각하는 코어 캐처 장비를 각 전력회사에 요구하지 않고 있어서, 수증기폭발을 방지하는 대책이 각 전력회사마다 다릅니다. 그러기에 그 안전기준과 심사의 신뢰성에 의문이 남아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원전에는 5중으로 안전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서 방사능은 외부로 새지 않는다고 했지만, 노심용융 때는 격납용기가 고온과압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벤트(Vent) 라는 수법을 사용하는데, 이 때 대량의 방사능이 방출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심사에는 통과되었지만, 발생이 최대가 되는 기준 지진동 1000gal, 기준 쓰나미 23.1미터에서도 안전한 것인지, 원자로건물의 내진 벽에 폭 1밀리 미만의 금이 1,130군데에서 발견되어 지진에 대한 강성이 최대 70% 저하되었다고 지적된 문제는 어떻게 된 것인지 등, 심사 서안에 대해 나온 퍼블릭 코멘트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쓰나미 대책으로 안전대책 공사의 심볼로써 건설된 29미터의 방조제의 말뚝이 암반까지 미치지 못하여, 신규제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된 동북전력은 규제위원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해면부지의 방조제직하의 지반개량공사를 수용하였지만, 산간 쪽의 물을 막게 되어 지하수위가 상승되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퍼블릭 코멘트(의견 공모 절차)에서 제기된 979건의 의문에 대해 규제위원회는 심사서를 통해 답변하고 있지만, 그 답변은 「최신의 과학기술적 지견(知見)에 의한 회답」이 아닌, 「(의문에 대한) 의견」일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기준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절대적 안전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후쿠시마현 이타테무라(飯館村)에 살고 있는 규제위원회 초대위원장 다나카 슌이치(田中俊一)씨가 「신규제 기준에 합격해도 안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라고 발언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문제를 안고 오나가와 원전 2호기의 재가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전 대책 공사를 하는데 원전을 1기 신설하는 것과 같은 3400억 엔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발전단위를 끌어올려 동북 전력의 경영을 압박할 것이 예상되지만, 현재 40년이라고 했던 원전 운전을 60년까지 연장하면 경영적으로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라타 사장은 정기점검 기간의 연장을 시사하는 발언도 하고 있습니다. 안전성을 보다 낮춰가고 있는 움직임들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가동이 되면 처분 계획이 서지 않는 방사성 폐기물을 계속해서 더욱 늘려가는 것이 됩니다.

지난 2월의 미야기현 의회 정기회에서 1년 전에 부결된 「현민 투표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여 의원제안으로 재제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21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탈원전을 둘러싼 미야기현 의회」가 자민당 등의 협의를 거쳐 제안되었는데, 취지설명과 위원회에서의 심의도 행하지 않은 채 3월 3일의 본회의에서 다수의 횡포로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민주주의 법의 존중도 없는 의회정치의 자살행위였습니다. 재가동의 일정이 구체화됨에 따라 논의를 봉쇄하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의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리는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통감한 최근의 상황입니다.

2020년 3월 30일



현민 투표조례의 의원 제안·항의 집회



방청자로 가득 메운 미야기현 의회 본회의
(두 사진 모두 2020년 3월 3일)

P8- P9

【개최 보고】 시라이시 하지메(白石 草) 센다이 강연회 「시민에 의한 검증~체르노빌 33년·후쿠시마 8년」

보고: 「이즈미」 핫토리 켄지

작년 11월 30일(토), 센다이에서 저널리스트 시라이시 하지메(白石 草) 씨(NPO법인 Our Planet아워 플래닛TV 대표이사)를 초대하여 강연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원전 사고와 갑상선암에 대한 자칫 어렵게 느껴지기 쉬운 문제를 유아와 아이들의 시점으로 문제의식을 던지며, 이제까지의 다방면의 풍부한 취재에 기반을 둔,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된 유익한 강연이었습니다.



강사 시라이시 하지메(白石 草)씨

후쿠시마현 「현민 건강 조사」 중 하나인 갑상선 검사에서, 사고 당시 후쿠시마 현내에 살고 있었던 18세 이하의 주민과 사고 후 1년 이내에 태어난 유아, 약 38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갑상선암·악성의심자가 231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9년 6월 30일 시점) 원전 사고 전에는 극히 적었던 소아와 젊은 층의 갑상선암이 후쿠시마현 내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원전사고 (=방사선피폭)와의 관계 여부를 후쿠시마현이 설치한 「현민 건강조사」 검토 위원회 등에서 의논·검토하고 있습니다.

2011년 이후의 1회째 검사에서 116명, 2014년 이후의 2회째 검사에서 71명의 갑상선암, 악성의심자가 확인되었지만, 유식자(전문가)회의에서는 원전사고와의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1회째), 전혀 가능성이

없다(2회째)라고 발표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검사를 너무 자주 한다, 또는 불필요한 치료·수술이 행해지고 있다 = 과잉진단·치료라는 의견도 분분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과 견해가 충분히 검증된 것인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시라이시(白石)씨의 취재와 강연에서는, 후쿠시마현의 조사에서 확인된 소아 갑상선암을 종래의 의학적인 방식에 따라 안이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고등학교 2학년 때 갑상선암으로 진단을 받은 후쿠시마현의 한 여성의 사례를 자세하게 소개했습니다. 고3 여름에 암 적출수술을 받고, 그 해 현외(県外) 대학에 진학했지만 입학때 검진에서 혈액 이상과 암이 재발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폐 전이가 진행 중이어서, 방사성 요오드를 이용한 RI(라디오아이소토프/방사성 요오드 동위원소)치료라는 힘든 치료방법으로도 치유되지 않는 중증병세로 악화된 사례.

또한 후쿠시마현 검사에 참가했던 갑상선암 당사자들 중에는 「(암이) 순식간에 커졌다」「조기 발견이 되어 다행이다」「(후쿠시마 현에서는 정기적인 검사기회가 제공되었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되어 힘든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어서 직장도 다닐 수 있었다」라는 증언.

무엇보다도 후쿠시마현 조사에 있어서, 「적절한 진단과 수술을 하고 있다」라는, 가장 많은 갑상선암 수술을 실행한 의사의 증언. 그리고, 재발과 전이에 관한 적지 않은 임상 병례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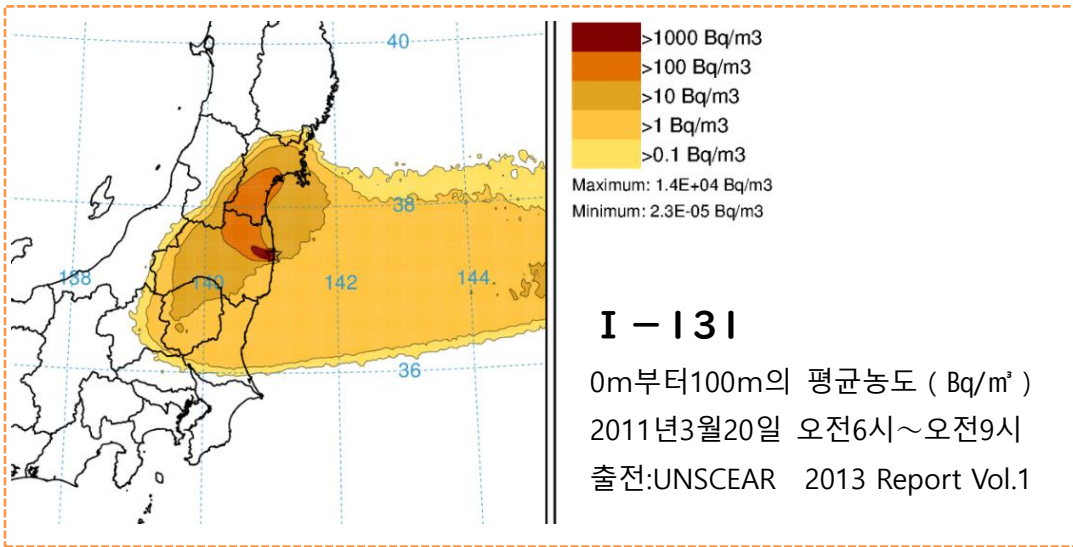
그리고, 의료자원(병상수나 전문의, 스텝)의 열악함 때문에 후쿠시마 현립 의대에서도 중증환자에게 RI 치료를 동시에 복수로 행할 수 있도록, 거액의 비용을 투자하여 새로운 수용병동을 건설·오픈한 것.

이러한 사례뿐만 아니라 시미즈 카즈오(清水一雄) 전(前)검토위원(가나지병원 명예원장·갑상선 외과의)과 현 위원도 후쿠시마현 조사에서 발견된 소아·젊은층의 갑상선암의 진행 속도가 빠르고, 어그레시브(침습성이 높고, 공격적)인 경향이 염려됨으로 이후로도 신중하게 검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했으며, 그리고, 원전사고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유식자(전문가)회의에서 갑상선암은 「무섭지 않은 암」, 「후쿠시마현의 검사를 축소해야 한다」라는 주장·의견이 일부 전문가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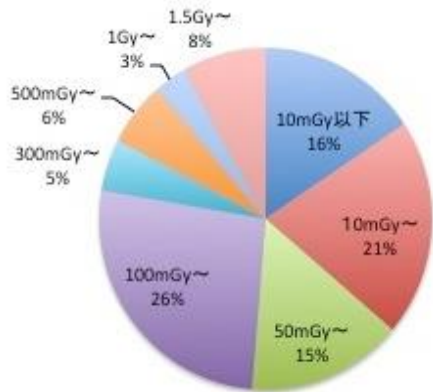
시라이시 씨는 이 점에 대해서 체르노빌의 법제도나 재해피해자 지원 상황을 취재한 것을 소개했습니다. 예를 들면 0.5 mSv /년 이상의 지역을 오염 지역으로 정하여 지원 대상지역으로 한 것. 사고로부터 5년 후에 체르노빌 법을 재정비하여 지금도 검진과 보양 프로그램을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실행하여 지금 세대뿐만 아니라 차세대에도 대응해 가고 있는 것 등.

정부(일본)의 대응은 심각하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최선을 다해 대응에 힘쓰고 있다. 희망의 하나. 사고로부터 머지않아 10년. 체르노빌에서는 사고 이후 33년이 지난 지금도 검진이나 보양 프로그램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적 대응을 계속해 가길 바란다.
시라이시 하지메 씨



원그래프: 체르노빌 사고 후 10년간의 피폭방사선량에 대한 소아 갑상선암 발병수(1986-1997)

데이터 출전: 우크라이나 국립내분비 연구소 Tronko 소장의 1999년 논문



체르노빌 원전으로부터 600킬로미터나 떨어진 도네츠크에서 사고 당시 4세였던 아이가 13세에 갑상선암이 발병되어 사고로부터 26년 후 31세에 사망한 사례가 있다.

체르노빌 피해지에서는 100 mSv (≒100mGy) 이하의 저선량피폭(낮은 방사능 피폭)이라도 갑상선암 발병의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

이상, 시라이시 씨 취재 레포트로부터

일본에서는 사고 당시, 약3개월간이나 멜트다운 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심상치 않은 방사선량 상승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피난이나 피폭회피(방사선방호)의 권유는 한정적이었고, 피해자나 갑상선의 피폭방사선량측정도 거의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현과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공적인 건강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후쿠시마현 뿐만 아니라 주변의 현을 비롯하여 방사능 오염 광역(広域)에 있어서 뒤늦게 나타나는 건강 이상증상을 배려하는 신중한 건강 조사나 정보 제공, 의료의 수용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 전조증상을 시민·주민 스스로가 검증해 나아가며, 검진과 보양프로그램과 같은 지원의 틀을 구성하고, 사회 안전망 구축에 관여·참여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라이시 씨의 강연을 통해 대기업인 기성 미디어에서 보도되기 어려운 시민의 작은 목소리를 독립 미디어에서 다루어 주는 것, 미디어와 보도, 행정에 의한 정보 공개의 본연의 자세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던 귀중한 기회였습니다. 이번 강연은 많은 분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게 되어 영상과 자료를 「이즈미」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http://tohoku.uccj.jp/izumi/?p=12852>



시라이시 하지메(白石 草) 센다이 강연회



강연모습: 시라이시 하지메 씨
(Our Planet TV 대표이사)

참가자 감상문

강연회에 참가한 후에 요네쿠라 미키 (센다이시)

영상을 사용한 강연에서 갑상선 검사의 현상을 잘 알 수 있었고, 갑상선암 수술·치료를 받는 아이들과 부모들의 고통과 아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갑상선암(다른 암과 병도) 다발의 심각성, 병세의 중증화가 염려되고 있는 상황은 무방비한 상태에서 피폭 된 초기 피폭과 지금도 계속되는 저선량피폭의 심각성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후쿠시마에서는 지금 검사를 축소하는 것일까? 이 의문도 풀렸습니다. 일본은, 미국이 설치한 "연구는 하되 치료는 하지 않는다" 히로시마·나가사키의 ABCC(원폭상해조사 위원회)를 이어받아 체르노빌에서 학자를 조직하여 「국제적 평가」를 「권위」 삼아 피해를 은폐하고, 환자의 데이터와 표본을 수집하여 연구재료로 사용하는 선두에서 왔습니다. 그것을 다시 후쿠시마에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후쿠시마현이 실시하고 있는 「현민 건강조사」중 하나인 갑상선 검사에 의하면, 원전사고 당시 18세 이하의 소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검사결과, 지금까지 연간 100만 명에 1~2명 정도의 소아 갑상선암, 또는 악성 의심환자가 2018년 12월 시점에는 적어도 273명(* 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즈미」가 실시하고 있는 갑상선 검사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며, 제가 응원하고 있는 「아동 탈피폭 재판」(* 2)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 1 Our Planet-TV 홈페이지 (2018/12/14 배신)

「소아 갑상선암 적어도 273명~후쿠시마 서포트 사업에서 판명」

<http://www.ourplanet-tv.org/?q=node/2342>

* 2 아동 탈피폭 재판 블로그 <http://datsuhibaku.blogspot.com/>

감상 마쓰다 치에코 (구리하라시栗原市)

원전사고 이후의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현상에 대해서 시라이시 하지메 씨의 강연을 듣고, 「방사능 오염 지역에서 생활하는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강연 중에 가장 마음에 남는 것은 「후쿠시마 현민 건강조사 결과, 갑상선암 그리고 악성이 의심되는 당시 18세 이하의 소아·아동이 231명」이라는 사실입니다. 「피폭영향으로 볼 수 없다」며, 지금 현재도 이 부정적인 견해를 관철시키려 하는 「후쿠시마 현민 건강조사」마저도 점차로 이렇게 명확한 숫자로 보고하는 것을 보면, 불안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아이소토프치료(방사성 요오드 치료)등에 관한 후쿠시마와 체르노빌의 사례보고에서는, 현장과 인물을 밀착 취재한 시라이시 씨의 레포트를 통해, 「청춘기를 희생하며 치료를 받고 있는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 미치는 심신피해의 심각성」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주목한 것은 3·11 갑상선암 소아·아동기금의 지원금 지급 데이터로부터, 아이소토프 치료(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위해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비율이 후쿠시마현 이외의 현(県)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후쿠시마현에서는 갑상선암의 위험이 조기에 발견됨을 의미하며, 후쿠시마현 이외의 지역에서 건강 조사의 필요성을 절박하게 나타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미야기현은 2012년의 유식자(전문가) 회의에서 건강조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결정하여(※1), 마루모리마치(丸森町) 이외의 시, 동, 촌에서는 피폭영향 조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폭영향에 대해서는 불분명하고, 피폭방호를 위한 대책도 불충분하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뜻있는 특수학교 교사들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학교 보건활동으로 「피폭 방호·정보제공」등의 활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시라이시 씨는 과학 저널리스트 요시다 유코(吉田 裕子)씨와 특수교육 연구학자 오타니 나오코(大谷 尚子)교수님과 공동으로 저희들의 활동에 대해서 보고해 주셨습니다. 책자로도 정보발신을 해 주셔서 전국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은 「정보발신」과 「건강조사」의 실현을 위한 커다란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연에서 발표한 데이터로부터, 아이소토프치료(방사성 요오드 치료)의 지원금 지급수가 많았던, 현민 건강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후쿠시마 이외의 현에서 「3·11 갑상선암 소아·아동기금의 지원금」을 어떤 기회와 검사를 통해서 지급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각 현에서 조사가 실시되지 않더라도 평소의 학교건강진단에서 「학교의사의 촉진(触診)」과 「당사자, 보호자를 위한 정보제공, 주의환기」의 유효성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목이 가라앉아서 평소의 아름다운 제 목소리를 들려드리지 못하네요」라며, 안 좋은 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모두를 웃음짓게 하며 3시간 넘게 선 채로 강연과 질의응답을 해 주신 시라이시 씨의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디 바쁜 업무 중에도 건강하시길,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민의 입장에 서서 따뜻하고 살아있는 보도로 활약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이 상

※1 미야기현 건강영향에 관한 유식자(전문가)회의 보고서

<https://www.r-info-miyagi.jp/site/wp-content/uploads/2011/11/270f7bd6e6f6eda6fad991f9e202a402.pdf>

2020년 1월 14일

지원에 대한 감사인사

2019년도에는 계획, 준비하고 있던 미야기 현 내의 각지에서 갑상선 검사와 건강상담, 그리고 북 일본 3교구와 「이즈미」가 공동 개최한 제14회 부모자녀동반 단기 보양(케어) 프로그램을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이즈미」의 활동을 기억해 주시고 기도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여러분들, 구체적인 활동에 참여하여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원전사고, 방사능에 오염된 지역에서 삶을 계속 해야 하는 많은 분들의 아픔과 고통을 나누고, 함께 걸어가는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 불안한 시대를 극복해 가는 빛을 보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작년 말 태풍19호 피해지역을 위한 지원으로 이즈미를 통해 주신 모금은 동북교구의 긴급 구호금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정성스런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미야기현 마루모리마치 조린니시(丸森町上林西) 부근

- 운영 위원장 후다 히데하루(이즈미 아이센 교회)
- 운영 위원 고바야시 유타카(나루코 교회) 스즈키 노조미(가와마타 교회)
- 테라다 스스무(하라마치 교회) 호시나 타카시(후쿠시마 교회)
- 후다 히데하루(이즈미 아이센 교회)
- 실 장 호시나 타카시(후쿠시마 교회)
- 고 문 시노하라 히로노리 (원자핵 공학 전공)
- 스 태 프 아이즈 가요코, 가사마쓰 기누코, 핫토리 켄지
- 회계협력 와타나베 히로에

일본 기독교 교단 동북교구 방사능 문제 지원 대책실 「이즈미」

UCCJ Tohoku District Nuclear Disaster Relief Task Force "IZUMI"

우편번호 980-0012

미야기현 센다이시 아오바쿠 니시키쵸 1-13-6

전화/팩스 022 - 796 - 5272

이메일 izumi@tohoku.uccj.jp

홈페이지 <http://tohoku.uccj.jp/izumi/>

